

文化短信

第1回 民族詩歌大賞 鄭杓年씨 受賞

民族詩歌研究所·民族詩歌大賞運營委員會(理事 長겸 운영위원장 民筮 金尙勳)주최 釜山 時調詩人協會주관 제1회 민족시가대상시상식이 지난 11월2일 하오6시 釜山日報대강당에서 거행됐는데 첫수상자는 鄭杓年(44·女·시조시인)씨, 수상작품은 「산꽃같이」와 「그릇」. 鄭시인은 경북 달성군하빈면 출생으로 69년 「여원」여류신인상에 시조 「너앞에」로 당선, 73년 「현대시학」7월호 「설일」로 추천완료 90년 시조집 「말없는 시인의 나라」출간. 현재 한국문인협회, 한국시조시인협회, 한국여류문학인회, 영남시조문학회 회원, 현대울동인. 심사위원은 姜南周씨(釜山水大교수·시인)를 비롯한 시인·문학평론가·시조시인 5명인데 모두가 대학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甦凡 閔畿씨 3著 出版紀念會

30년동안 한결같이 언론계교열직에서 말과 글을 닦아왔던 작가 소범 閔畿씨의 장편역사소설 「몽고五國志」 단편소설집 「이목구비傳」 시집 「哲學하는가」의 3著출판기념회가 10월29일 하오6시30분 프레스센터 멤버스클럽서 성료됐다. 작가는 특히 고대 渤海國과 蒙古등 北方의 역사와 언어연구에 조예가 깊어 이방면의 글을 많이 썼는데 이번에 펴낸 몽고五國志도 그의 오랜 몽고연구가 낳은 작품으로 평가된다.

民筮 金尙勳씨 第二詩集 「于勒의 춤」

문단에 선지 20년만인 76년 시집 「播種苑」을 펴낸 시인 民筮 金尙勳씨(현 釜山日報 理事·釜山時調詩人協會長)는 정치논설집 「고발과 비판」(71년刊) 학술논문집 「冷戰時代의 東北아시아」(84년刊), 「한국과 국제관계」(84년刊)등 현역언론인으로서 시대감각을 듬뿍담은 많은 저술을 집필해왔는데 근래에 제2시집인 「우륵의 춤」을 펴냈다. 제1시집을 펴낸지 13년만의 시집이 된다.

여기서 보여주는 60여편의 시도 제1시집 「播種苑」에서와 마찬가지로 거의 모두가 단문형식이라 매우 운율적이다.

단문이 갖고있는 정확성과 명징성을 그는 시에 과감히 끌어들이 자신의 문법으로 하고있다. 이것이

그의 시의 특징이라 할수도 있다.(4×6倍版 316면 釜山日報出版局刊, 값 7,000원)

趙一文씨 中國大陸을가다

中國 南京중앙대학정치과 출신이며 한때는 조국광복을 위해 청춘을 바친 독립기념관이사장 趙一文박사(전 建大총장)가 우리와는 一衣帶水사이에도 中國大陸 歷史로부터 十大名勝古蹟, 全國의 自然과 資源, 重要 文物등 中國의 모든것을 엮은 소상한 中國大陸의 이모저모를 펴냈다. 副題는 一獨立운동의 자취를 더듬으며-. 中國리시를 맞은 이때 中國旅行을 위해서나 研究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內容인데 우리민족이 東北에 끼친 역사적유물 등에 관해서 홍만호씨의 「中國大陸」에서 많은 부분 참고했다한다. 著者는 머리말 末尾에서 「한때는 독립운동전선을 질주하기도 하였다. 顛沛流離, 죽을고비도 여러번 넘겼다. 그러나 용케도 槍林彈雨를 헤치고 나와 지금은 대한의 품에서 분에 넘치는 영광을 누리고있다. 反面에 敵의 銃彈에 맞아 東北의 雪原을 붉게 물들인 獨立軍이나 太行山깊은 골짜기에 쓰러져 屍身조차 거두지못한 光復軍同志들은 얼마나 많겠는가? 이 번번치못한 冊을 그들先烈의 祭壇에 바치고자 한다」고 맺고있다. 이책의 出版기념회는 10.31. 하오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서 성료.(4×6倍版 401面 自由出版社刊 값 5,500원)

崔光烈씨 「역사의 덧」

종교는 무엇인가, 民族思想의 發見, 價値觀의 혁명, 한국자연론, 韓民族史와 思想의 源流등 많은 저서와 역서를 펴낸 시인이며 소설가인 崔光烈씨(65·본회 회원)는 이번에 우리민족의 分斷극복을 위한 대하소설 「歷史의 덧」을 펴냈다. 작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한민족의 분단을 巨視的인 시각에서 다각도로 추적하면서 동시에 민족성원의 개개인간을 미시적인 次元에서 표현대상으로 삼고 한민족의 현대사를 극복하려는 의도에서 쓰여졌으며 소설구성과 내용, 사건등은 역사의 현장성을 다분히 고려한 사실적 측면을 다루고있다」고 하였다. 이제 21세기를 앞둔 地球上의 모든 문제, “새로운 세계의 이미지구상”에 도움이될것으로 본다.(4×6倍版 311面 동인기획, 값 3,800원)

山岳淨化寫眞公募

'91.5月末까지 서울特別市 山岳聯盟서

서울특별시 山岳聯盟(회장 權孝燮)은 서울특별시·MBC·日刊스포츠 후원으로 12월1일부터 91년 5월31일까지 산악정화사진을 공모한다. 응모내용은 ① 山 훼손고발사진(파괴오염된 山과계곡) ② 보존돼야 할 아름다운山(동·식물포함)

- ▲ 당선작발표 : 91년 6월10일 日刊스포츠
- ▲ 전시기간 : 7월6일~7월15일
- ▲ 접수처 : 서울 종로구 동숭동 1-28(홍사단 405호)
서울특별시산악연맹사무국(전화 762-6405~6)

'91山岳·生態·風物다이러리

도서출판 「호영·화산」(대표 송찬영·서울 西大門區 冷泉洞232)은 ▲ 山岳(5,000원) ▲ 한국·日 風物(4,000원) ▲ 韓國의 生態(4,000원) 原色사진版으로 편집된 '91년 다이러리를 제작. 단체주문시 50부이상 10% 100부이상 20% 300부이상 30% 할인공급한다고.



제 9 회 金洙暎문학상 시인 李河石씨 수상

민음사가 제정한 제 9 회 金洙暎문학상 수상자로 시인 李河石씨(사진·본명 夏錫·현 嶺南日報文化部長)가 선정됐다. 수상작은 시집 「우리 낯선 사람들」. 李씨는 71년 현대시학을 통해 등단, 시집 「투명한 속」 「김씨의 옆얼굴」등을 펴냈다. 심사는 柳宗鎬, 高銀, 金禹昌, 崔勝鎬, 黃東奎씨가 맡았다.



廉吉正씨 文學世界추천등단

廉吉正씨(사진·전 국회경과위원장)는 새로 창간된 순수문예지 「文學世界」를 통해 시인으로 추천되어 문단에 등단했다. 「동녘바다에서」의 2편의 시로 추천한 원로들은 「알팍한 기교가 거부된 준열하고도 맥이 굵은 詩作의 앞날을 축복한다」고 적고있다. (11.24. 영남일보)

李祥雨씨 9번째 推理小說펴내

「모두가 죽이고 싶던 여자」

추리작가 협회장 李祥雨씨(서울신문사 常務理事)가 장편 추리소설 「모두가 죽이고 싶던 여자」를 펴냈다. 80년대 추리소설의 붐을 일으키며 추리소설 단을 이끌어왔던 李씨의 9번째 장편인 이 추리소설은 노사갈등으로 야기된 사회문제를 추리소설 형식으로 다룸으로써 「사회추리소설」이란 새로운 章을 개척한것으로 평가된다.

(명지사刊. 300면 값 3,500원)

具 活에세이·그리운날의 추억제

현재 대구의 매일신문 문화부장이며 嶺南 수필문학회 회원인 具 活씨가 「具活에세이·그리운날의 추억제」를 펴냈다.

(文學世界社刊·252면 값 3,500원)

21년만에 옮길 金洙暎詩碑

도봉산 선황당자리서 잘보이는 곳으로

金洙暎시인(1968年 作故)을 추모하여 그의 1주기인 1969년에 국내저명문인들이 유택이 있던 도봉산 선황당자리에 세웠던 詩碑는 최근 유택의 이전으로 쓸쓸이 풀속에 싸여있어 문인들과 유족들이 아쉬워해왔는데 이들의 진정을 받은 北漢山국립공원 동부관리사무소 鄭權燮 소장의 도움으로 탐방객이 많이 모여드는 잘보이는 곳으로 옮기게 되었다.

전 明星그룹 金澈鎬회장

12.8. 한국詩 文學賞 받아

전 명성그룹회장 金澈鎬씨(전 本會團體會員)는 세칭 명성사건으로 현재 7년째 수형생활중인데 지난8월 한국시문학상을 본인을 대리하여 대학생인 큰딸이 받았다한다. 金씨는 15년형이 확정되어 안양교도소서 복역중인데 지난 87년 「지리산」 「강변에 서면」이 「예술계」 제 7 회 성인상에 당선되면서 등단, 지난해 시집 「靑山」을 냈으며 올해에 부인 申明眞씨와 함께 詩·에세이集 「시간의 별판」을 펴냈었다고.